

# 꽃매미 약충, 5월 중하·순 절정 사전예방 필수



박흥현  
국립농업과학원 작물보호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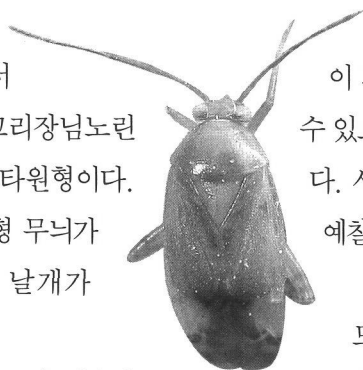
## 애무늬고리장님노린재

포도나무의 생육초기에 발생하는 장님노린재 중에서 가장 우점하는 종이 애무늬고리장님노린재이다. 성충은 옅은 녹색의 타원형이다. 날개에 노린재류 특징인 X자형 무늬가 있고, 끝 쪽에는 막질화된 날개가 있다.

약충은 옅은 녹색으로 진딧물과 비슷한 생김새이다. 부화약충은 신초의 선단부 잎을 가해하다가 꽃송이가 출현하면 과방을 가해하기 시작한다. 1세대 성충은 개화전후인 5월하순~6월 상순경, 2세대는 6월하순~7월중순, 3세대는 8월중순에 출현한다. 피해는 성충과 약충이 흡즙하여 발생한다. 어린잎을 선호하고, 피해받은 잎은 발육이 불량해지거나 위축되고 기형화된다.

피해초기에는 흡즙한 부위의 세포가 죽어 바늘로 찌른 듯 갈변하지만 잎이 자라면서 흡즙부위는 크게 구멍이 생기고 전체 잎은 너덜너덜해지거나 기형화된다. 과실을 가해하는 경우는 가해시기에 따라 꽃떨이 현상, 소립과 현상, 코르크화, 열과, 착색장애 현상이 나타난다.

포도원 주변에 벚나무, 살구나무, 매화나무 등



애무늬고리장님노린재 성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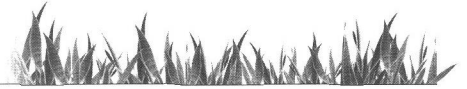
기주식물이 있는 경우는 여기서 서식하던 약충이 개화기 무렵 성충이 되어 포도원으로 날아 들어와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예찰을 철저히 하여 방제해야 한다. 사전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초기 예찰과 적기방제가 필수적이다.

과실에 피해를 받지 않는 것이 중요하므로 꽃송이가 형성되는 개화전 15~20일 전까지 방제가 마무리 되어야 한다. 초기 예찰은 포도 발아기 신초 2~3엽기에 말단부 위의 잎을 펼쳐 보아서 진딧물과 비슷한 녹색의 벌레가 있는지를 보아 실시한다.

또한 초기 피해있는 흑갈색의 반점이 생기고 약간 오그라들 듯 기형화되므로 발생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방제적기는 포도 발아기(3~4엽기)부터 꽃송이 형성기이며 다발생시에는 2회 정도의 방제가 필요하다.

## 애매미충류

애매미충 중에서 우점하는 종은 이슬애매미충으로 몸이 전체적으로 황색을 띠고 있다. 날개를 접은 경우 등쪽 중앙 부위에 흰무늬가 선명하지는 않는다. 약충은 몸의 색깔이 유백색이므로 붉은색



인 이마점애매미충과 구분될 수 있다.

25℃에서 알기간은 13일, 약충기간은 17일 이다. 성충으로 월동한 후 5월 초순부터 포도원으로 이동한다.



이슬애매미충

6월 하순부터 7월 상순에 1차 피크, 8월 중순에 2차 피크를 가진다. 11월 이후에는 월동처인 낙엽, 과수원내의 잡초, 나무껍질의 사이 하우스 자재내 등으로 이동한다. 애매미충은 잎 아랫면에 붙어서 식물체의 즙액을 빨아먹는데, 그 흔적은 잎 윗면에서 뚜렷하게 관찰된다. 희고 둥근 모양의 작은 반점이 흩어져서 발생하며, 잎 전체가 하얗게 변하기도 한다. 피해를 심하게 받으면 낙엽이 조기에 일어나기 때문에 이듬해 수세약화가 우려된다. 밀도가 높을 경우 끈적거리는 배설물인 감로가 과실에 부착하는 피해를 주기도 한다. 작은충격에도 날아오르는 습성 때문에 작업을 하는 동안 시야를 확보하는데 장애요인이 되기도 한다.

겨울철에 포도원 내의 낙엽이나 주위의 풀숲을 청소하여 월동 잠복장소를 제거하여 밀도를 낮출 수 있다. 무당벌레가 천적이다. 약제방제적기는 유충발생이 많은 6월 중순과 8월 상순이다.

### 꽃매미

꽃매미는 최근 대발생한 들발해충이다. 꽃매미는 년 1회 발생하는데, 알로 월동하며, 산란은 9월 하순~10월경부터 시작된다. 난과당 알 수는 30~40개 정도 이다. 월동 알은 5월 중순에 부화하고, 7월 중순까지 약충기간을 거친다음, 7월 중순부터

성충이 출현한다. 약충의 발생피크는 5월 중·하순에 보인다. 기주 식물은 40여종이 되지만, 가죽나무, 포도나무를 가장 선호한다.

피해는 포도 줄기를 흡즙하여 수세를 약화시키거나 과실이나 잎에 그을음병 피해를 주고, 감로로 인해 수확기에 품질을 크게 떨어뜨린다. 꽃매미 밀도가 높을 때는 과원 전체에 고무 볼 수 있지만, 낮을 때는 야산에 가까운 쪽의 외곽에 주로 위치해 있어 주의깊게 줄기나 지주대를 살펴야 한다.

자연발생 천적으로 침노린재 등이 알려져 있고, 현재 중국에서 들여온 벼룩좀벌에 대한 이용연구가 진행중에 있다. 물리적방제법으로는 월동후부터 4월 하순까지 포도나무줄기, 시멘트 지주대, 인근 야산 및 가로수 등에 산란된 난과를 긁어내거나 문질러서 제거하여 일차적으로 밀도를 줄일 수 있다. 알스나이퍼는 스프레이 방식으로 난과위에 도포하여 알이 부화되

는 것을 막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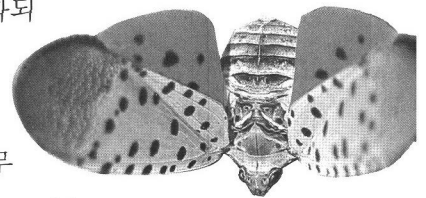
포도원 인근에 식재된 가죽나무

에 성충이 모여 있는 경우

직접 적용약제를 수관에

살포하거나 수간주사를 이용하여 방제를 한다.

7월 중순이후 성충이 외부로부터 들어오기 시작하면 높이 2~3m로 차단망을 설치하거나 야산과 포도원사이에 있는 가죽나무 군락에 트랩 식물을 만들어 성충을 유살할 수 있다. 포도원 내에서 방제적기는 부화가 시작되는 5월 상·중순부터 부화약충에 대해 적용 약제로 1~2회 방제 한다. ㉞



꽃매미